

# 불교학 연구에 현장성 부여... 재물을 잘 활용했던 선각

강사: 이민용(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이진두(불교신문 논설위원)  
일시: 2010년 9월 8일  
주제: 한국 불교를 빛낸 재가불자 2인을 조명하다  
장소: 다보원 법당  
주최: 대한불교진흥원 '불교와 사회 포럼'  
주관: 월간 불교와 문화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과 월간 <불교와 문화>는 2010 대원문화의 달을 기념해 9월 8일 대한불교진흥원 다보원 법당에서 '불교와 사회 포럼' 특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재가불자의 표상이며 설립자인 대원장경호 거사를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9월을 대원문화의 달로 정하고 한국불교를 빛낸 분야별 재가불자를 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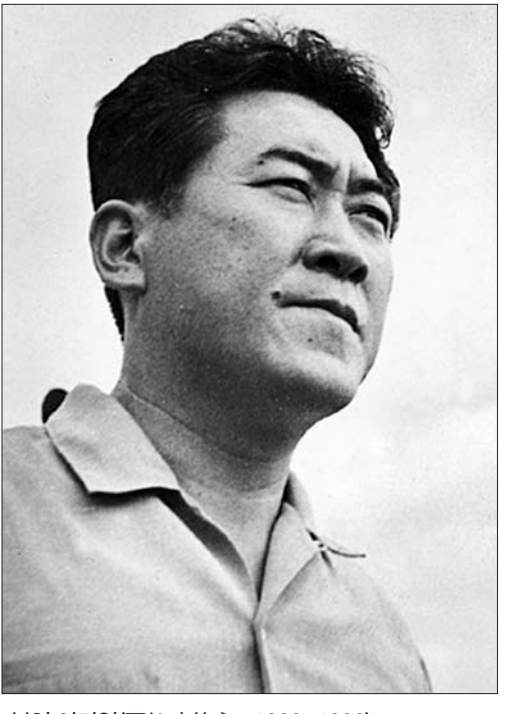
행사에서는 학술·언론분야에 공로를 세운 두 재가불자 불연 이기영(1922~1996)과 덕산 이한상(1917~1984)의 업적에 대해 고찰했다.

이민용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가 '이기영 거사 - 시대를 앞선 전환점 위의 학자'를 주제로, 이진두 불교신문 논설위원이 '이한상 거사 - 불교언론 발전과 한국 불교 세계화의 초석을 놓다'를 주제로 발표했다. 다음은 발표의 요약이다.

**#불연 이기영(不燃 李箕永 · 1922~1996)**  
오늘날 불교학계에서 이기영 교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인문학계를 통틀어서도 불연 이기영을 인지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1960~1970년대 어느 정도 문화의식과 사회의식을 지니고 산 세대라면 더욱 그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질 것 같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사에서 '원효'를 언급하면 피할 길 없이 불연 이기영 거사를 연상하도록 돼 있다. 원효는 그의 학문적 혜성이었고 원효는 그의 별칭으로 따라다녔다. 불연 이기영이 타계한 지 14년째인 오늘날 그의 전집은 계속 출간되고 있으며 그가 세운 '한국불교연구원'은 그의 10주기를 기념하는 국제회의를 2006년에 주관해 그를 학문적으로 추려했다. 한 평범한 인문계 학자로서 사후에 이민용 추모되고 기억되고 그 정신을 기린다면 불연 이기영은 무척 행복하고 성공적인 학자였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한국 문화와 사회,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 걸쳐 불교를 주어(主語)로 놓고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을 언급한 학자는 근소하다. 1960년대 근대적 조류가 물릴 듯 되쳐올 때 불교를 한국 문화의 근간으로 여기며 논의의 소재로 삼은 학자로 불연 이기영을 거명해도 좋을 듯 싶다. 곧 그는 과감히 불교를 소재로 문화, 역사, 정치에 접근하며 불교적 전망을 펼쳤다.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학문의 틀이 서구



불연 이기영(不燃 李箕永 · 1922~1996) 사진제공=불교와 문화

는 불교계의 하나의 사건으로 주목될 연구소의 설립이었다. 한국불교연구원은 당시로서는 거의 초유의 활동단체였다. 불연은 불교 사상을 원효 스님이 접근했던 방법을 채택하며 서구적 불교 연구의 틀을 극복하려 했다. 불연은 불교학 연구는 신

**#덕산 이한상(德山 李漢相 · 1917~1984)**  
덕산 거사는 재력이기면서 불교를 위해 자신의 재력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에게 보여줬고 불교인으로서 자신의 신행생활에 얼마나 열거했는지도 알게 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 가진 것을 참 뜻있게 쓰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기는 쉽지 않다. 또 많이 베풀면서도 티를 내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보시하기란 정말 어렵다.

경기도 개풍군 임한면에서 4형제 중 2남으로 출생한 덕산 거사는 1938년 경기공업공업학교(경기공업전문학교 전신)을 졸업하고 일찍이 토건업에 투신해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됐다.

덕산 거사와 친분이 남달랐던 박성배 교수(미국 스토니브룩대)는 덕산 거사를 "대학생 불교운동을 오랫동안 재직 지원했고 대학생 불자 수련대회를 통해 자기 신앙생활을 정리했으며 한국 불교 100년사를 편찬, 최근대 불교사를 정리하고 '불교신문'을 인수해 정상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삼보화회를 조직, 장학사업을 했으며 현재의 일요법회 형식 절차에 절대적인 공헌을 했다. 또 미국에 와서 최초로 전통적인 사찰을 건립해 미주에서 한국 불교운동에 진력했다. 덕산 거사는 한국 불교 현대화에 큰 공헌을 한 분으로 한국 불교사에 기록할 만한 인물이다"고 술회했다.



덕산 이한상(德山 李漢相 · 1917~1984) 사진제공=불교와 문화

인재 양성에 열을 쏟았다. 또 삼보화회 산하에 삼보장학회를 두어 영재 양성에 큰 뒷받침을 했다. 덕산 거사의 또 다른 큰 업적은 균제제도 실현에 기여한 것이다. 그는 1968년 세계불교도우의

## 불교를 한국 문화의 근간으로 여기며

### 한국의 역사·문화·철학 언급

주도적인 방향을 지향할 때, 불연이 자신의 학문적 정향(scholarship)을 어디로 설정했는지는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 불교학계로서는 거의 초기에 해외 유학을 했으며 서구의 영향을 받은 불연이 어떻게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의 상충을 이해했으며 수입 일본도적인 종속적 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다.

불연은 집안의 종교적 가계의 인연으로 가톨릭이었으며 그 인연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가게 됐다. 보기에 따라 행은일 수도 있고, 더욱 해외 유학이라는 당시로서는 학자가 되기 위한 가장 큰 혜택일 수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해외의 학연(學緣)으로 말미암아 수입된 학문의 내용이 그들을 끝내 서구 학문의 수입상 내지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불연의 경우 이런 경향을 전연스킨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원효를 내세우며 강의를 펼친다. 민족의식과 내 것 찾기에 몰두했던 4·19세대에게 불연은 불을 지피는 것이었다.

오늘날 불연 이기영 하면 학문, 신앙상으로 원효 전문가를 연상하지만 또 하나의 그의 대명사는 '한국불교연구원'이다. 1974년 개설된 당시로서

학과 같이 신행과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불교연구원에 과감하게 구도회를 부설로 둔다. 연구와 신행이라는 단순한 이원 조직으로 보일지 모르는 형태이나 여기에는 실로 불교 연구의 획기적 전환을 시도하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종래의 불교 연구가 서구의 언어, 문헌학적 지적 작업이었다면 신행의 강조는 그것에 현장성을 부여하는 새로운 지향의 불교학 연구의 진로였다. 곧 서구 문헌 속에 갇힌 도서관 속의 불교, 화석화된 불교와 호교론적 사찰에 갇힌 불교를 극복하는 일이었다. 변화하는 사회와 생동하는 생활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재현되어야 하는지를 지향했다. 이러한 방향 전환과 자리매김을 한 이후 불연은 모든 활동을 한국불교연구원의 목적과 사업 안에서 전개했다. 그는 한국불교연구원을 자신의 총화로 생각하고 그의 모든 학술 활동, 사회참여를 이 기구를 통해 표출했다. 불연은 다양한 활동과 다면불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임에 틀림없다. 그는 서구 근대 불교학의 도입과 그것을 극복하려 했고, 한국적 사상으로서의 불교사상을 현대적으로 발전했으며, 종교적 심성의 재발을 통한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미래를 꿈꿨다.

## 한국 불교 언론 발전의 초석 이뤘

### 삼보법회 통해 포교 확대

- 불교 언론 창달에 큰 역할  
덕산 거사는 '대한불교신문'의 발행인과 사장을 맡아 불교 언론 창달에 큰 기여를 했다. 오늘날 '불교신문'인 '대한불교신문'은 조계종의 기관지임에도 자체의지로 발행되지 못하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개인에게 위탁돼 운영되고 있었다. 덕산 거사는 행원 스님의 설득으로 신문을 맡기로 하면서 총무원에 편집권과 인사권의 보장을 요구했다. 이것은 총무원의 지나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문이 한 종파의 기관지에 머물지 않고 범불교적인 한국 불교의 공론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는 신문을 인수하고 나서 제호를 '대한불교'에서 '대한불교신문'으로 바꾸고 신문의 위상을 명확히 세우고자 했으며 8면으로 증편하고 질적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시켜 한국 불교 언론 발전의 초석을 이뤘다.

- 인재 양성과 근 포교활동에 힘을 쏟다  
덕산 거사는 대학불교연합회와 불은사 대학생 수도원, 불교종립학교를 재정 지원함으로써

회(WFB) 부회장에 선출됐다. 이를 계기로 한국 불교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세계 저명 불교 인사를 한국에 초청했다.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눈앞에 두고 있던 때 덕산 거사는 WFB회장인 태국의 폰 공주와 베트남의 탁탐 차우 스님을 각각 초청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기까지 한국군에는 기독교와 천주교의 군복과 신부는 있어도 불교의 군복사는 없었다. 불교계에서는 여러 차례 군복사제도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때에 내한한 차우 스님은 "베트남에 대한 군복사의 선무활동 내지는 포교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베트남 불교의 지도자인 차우 스님의 군복사에 관한 발언은 비록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했으나 우리 정부가 그냥 듣고 넘길 일이 못했다. 불교계에서 군복사제도의 도입을 요청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앞세우던 정부당국이 베트남 파병과 함께 군복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덕산 거사의 불교를 통한 민간외교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리=이민용 기자 bohung@buddhapia.com

**이민용**  
참여불교재가연대 공동대표

**이진두**  
불교신문 논설위원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천불·삼천불·만불·개금·탱화·금공·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창

**청동불 40여분 전시 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야 상담 합니다

## 무료 수강생 모집

"이는 것이 힘입니다, 기숙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울는 경우, 장단축,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감해보실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립니다)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도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력의 이름이나, 근력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업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3-01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 회원 모집

世界佛敎 宇州 大圓 宗團發展 總聯合會

◆회원종단 : 韓國佛敎 一大圓 曹溪宗 大韓佛敎 宇州 大法王宗

世界佛敎宇州大圓宗團發展總聯合會는 중단연합단체입니다.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 함께하실 회원종단 및 중도를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입회(중)서류

- 입회(중) 신청서 1부
- 사찰 사암 등록증 1부
- 승려(법사) 등록원부 1부
- 사진 3매
- 기타 서류

▣ 특전

각 회원종단의 화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여 사찰 사암 개인 재산은 협회 및 회원 종단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世界佛敎宇州大圓宗團發展總聯合會 회장 도원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464-8  
전화 011-286-2439 / 031)953-7045. 952-4077